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7월 24일(주일) 제1403호



하용조 목사 소천 11주기 “그립고 여전히 보고 싶습니다”

8월 1일~5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 새벽기도회 설교영상 상영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 ...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유튜브 채널 중계

오는 8월 2일(화)은 하용조 목사 소천 11주기다. 온누리교회는 8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를 ‘故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하용조 목사를 기리고 추모한다. 추모기간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사도행전’을 주제로 설교한 영상이 상영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6시, 양재온누리교회 1부 오전 5시 20분, 2부 6시 30분, 나머지

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새벽기도회를 한다.

하용조 목사 소천 11주기 추모예배는 8월 2일(화) 오전 11시 Acts29 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에서 드린다. 유가족과 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드린다. 박종길 목사가 사회를 보고, 홍성호 장로(당회서기) 대표기도, 블러썸챔버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유가족 인사 등의 순으로 예배가 진행된

다. 故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된다.

故 하용조 목사를 책으로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하용조 목사 소천 10주기를 기념해서 <하용조 목사 평전>과 <하용조 강해서 전집>이 발간됐다. <하용조 목사 평전>은 12가지 주제(복음, 성령, 교회, 목회, 예배, 설교, 전도와 선교, 교육, 긍휼사역, 문화, 고난, 생애와 목회 사상)로

하용조 목사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용조 강해서 전집>은 하용조 목사의 주옥같은 강해 설교를 기록했다. 창세기 5권, 느헤미야 1권, 이사야 1권, 마태복음 5권, 요한복음 5권, 사도행전 3권, 로마서 2권, 에베소서 1권, 히브리서 1권 등 총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란노 서점(서빙고, 양재)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용조 목사는 2011년 8월 2일 뇌

출혈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향년 65세. 연예인교회 개척, 1980년 두란노서원 창립, 1985년 온누리교회 창립, 2005년 CGNTV 설립, 2007년 일본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시작, 2010년 NGO 더멋진세상을 창립했다. 저서로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소나타>, <하용조 목사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등이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

2000선교 본부와 공동체 본부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안전하고 풍성한 여름 아웃리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158개 팀, 2,536명, 해외 50개 팀, 427명, 온라인 16개 팀(7월 20일 기준)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만(7월 24일부터 30일까지) 30여 개 국내 아웃리치팀이 경남 함양, 충남 태안, 전북 무주 등지에서 축호전도, 여름성경학교 등의 사역을 하고, 대학청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 아웃리치팀이 브라

질, 몽골 등지에서 선교사들을 위로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재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아웃리치 팀원들의 건강과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는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증가세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한 아웃리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조문숙 선교사 한국 도착 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투병 중인 조문숙 선교사(탄자니아)가 한국에 도착했다. 지난 7월 16일(토) 에어엠블런스로 탄자니아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조문숙 선교사는 현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앞으로 열려있는 두개골을 봉합하고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박채진 성도(강동온누리교회, 조문숙 선교사의 큰아들)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어머니가 한국에 잘 도착했다”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고, 앞으로 치료와 재활이 잘 진행되도록 계속 중보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 이메일로 접수

온누리교회 당회 소속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실천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평일에 교회를 개방해서 어린이 놀이방,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보내면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는 ‘이름, 소속,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onnuri.fgc@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성도들이 보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올해 8월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11월 교회적 실천방안 논의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10-3793-2489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맛있는 말씀 해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 1:5)

창세기 1장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시간, 공간, 물질, 생명,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의 작품이며, 만드신 존재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지금의 세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존재하게 되었다’고 창조를 선포하지 못한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와 문화에서 기원을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있었는데 변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기술할 뿐 성경과 같은 초월적 창조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만이 초월적 창조를 기술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질서를 만드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의 빛에 의해 낮과 밤이 만들어져서 이

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하루를 먼저 만드셨다. 지구의 자전과 태양,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태양이 없어도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대신할 ‘빛’을 먼저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나누셨고, 물로 덮인 땅(지구)이 자전하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첫째 날 태양을 만드실 수 있는데도 이 과정을 거치신 것은 하루가 태양계의 질서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루를 정하셨고, 태양계의 질서는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작동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위함이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과정을 하루하루의 시간 단위로 나눠 기술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하루가 되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하루 24시간이 되려면 아침부터 아침까지든지, 저녁부

터 저녁까지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루가 저녁부터 아침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하루가 끝나는 과정이 저녁을 통과하고 아침까지라는 의미이다. 첫째 날의 창조 과정을 생각해보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지 않고, 하루의 마지막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태양을 임시로 대신하는 ‘빛’이 창조되기 전에 첫째 날의 시간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의 시작을 낮과 밤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째 날의 마지막 시간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이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고, 마지막은 저녁을 지나 다음 아침까지가 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등이 모두 서수(순서를 나타내는 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하루(one day)’, ‘둘째 날(second day)’ 등으로 첫째 날만 서수가 아닌 ‘하루’라는 기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서수로 표현되어 있다. 창조의 첫 번째 날은 아직 두 번째 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첫째 날이 될 수 없고, 하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둘째, 셋째라는 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루라는 시간을 처음부터 새로운 질서로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질서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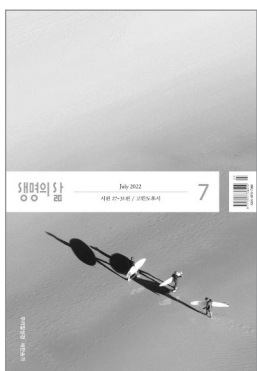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지만 하루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루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한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주님 능력



7월 25일~31일
고린도후서 10:1~13:13

묵상포인트 1: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거리가 멀다. 거짓 교

사들이 그러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잃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비난과 공격에 어떻게 변증하는지 묵상하자.

▶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편지는 잘 쓰지만 외모와 언변이 약하다며 비하했다.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에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난했다. 심지어 바울의 수고로 맺힌 복음의 열매를 자신들의 공로인 양 자랑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일침을 가한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사역했다. 거짓 교사들과 맞서면서 바울이 의지하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 앞에서 그들의 교만이 무너질 것이다.

묵상포인트 2: 참된 사역자는 자신의 ‘약함

’을 자랑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외면을 자랑한 거짓 교사들과 달리 바울은 자신의 지극한 수고와 고난을 사도의 표로써 제시한다. 바울이 자랑하는 목적은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고,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함이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 일과 그 육체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 뜻을 묵상하자.

▶ 바울은 자신도 “육신을 따라 조금 자랑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자랑은 온통 약함뿐이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고하고, 육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굶주리고, 헐벗은 일들을 진술한다.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한 일은 그의 연약함을 잘 보여 주는 사건 중 하나다. 바울은 주님이 보여 주신 환상과 계시도 말한다.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가서 형언하기 힘든 말을 들었다. 엄청난 신비 체험으로 교만할 수도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신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원리를 가르치신다.

묵상포인트 3: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알린다. 그가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낸 목적은 그들을 대면하기 전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고, 바울을 무척 힘들게 했음에도 편지를 쓰는 마음에는 책망보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다.

바울이 품은 사랑과 축복의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결론을 묵상하자.

▶ 바울은 “다시 고린도교회를 방문할 때도 이전처럼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한다. 도리어 “성도들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겠다”고 한다. 연보(헌금)에서 일부를 착복하려 했다는 모함에는 결백함을 단호히 변호한다. 바울은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충분히 경고한 만큼 재방문했을 때 죄지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예고한다. 문제 많은 성도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허물을 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바울처럼 어떤 견고한 진(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변증하고 설득하자. 어떠한 비방과 비난에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평소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자랑의 말은 모두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자. ▶ 하나님께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로 인해 겸손케 되었음을 감사하자. 주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도현이를 위해서!

제 친구 도현이(11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도현이는 4살 겨울 ‘화귀 소아암 신경모세포종 4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후 7년 동안 완치되고 재발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도현이의 상태가 최근 많이 나빠졌다고 해요. 지난 2월부터 계속 종양이 커지고 번지고 있대요. 어렵고 힘들어진 치료 때문인지 도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도현이는 지금까지 항암치료만 40개월, 이식 3번, 양성자치료 15번, 방사능치료 30번 등 힘든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냈어요. 그런데 최근 종양의 전이 속도가 빨라지고 기흉도 심해져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모(도현이 엄마)한테 듣기로는 병원에서 이미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한 상태이고, 더 이상의 치료는 도현이만 괴롭히는 일이라고 했대요. 도현이를 볼 수 있는 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했대요.

도현이와 이모의 가족을 위해서 제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도현이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도현이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모의 가정에도 평안과 위로, 힘을 주시기를 꼭 기도해 주세요.

/ 이준희 학생(양재온누리교회 꿈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복음은 죄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면입니다. 구원의 적극적인 면은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의를 선물로 주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졌기에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전달되지 않은 이방인들도 죄인임을 깨닫는 도구가 있습니다. 도덕과 양심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21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들에게 ‘무죄’라는 판결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도 바울이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의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21~22절).

하나님의 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용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의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시는 의입니다. 죄인인 이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며 관계를 회복하시는 의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하였고, 이를 실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 주권적, 주도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며, 관계 회복을 요청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반응 ‘믿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23~26절).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자로 구속(敍贖)이라는 단어를 보면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구약 역사에 구속의 그림자들, 구속을 설명하는 예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롯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구속자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빚을 지거나 죄를 범해서 노예나 죄수가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종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구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25절).

여러분, 죄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신 것이 구속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신 것은 화목제물 되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칭의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값진 대가를 지불한 선물입니다. 그 대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속받았고,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 값비싼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 값비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믿음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도,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는 매우 값진 것들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도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용서와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랑과 차별을 완전히 배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의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중에서 빠져야 하는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오직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27절).

자랑은 인간 내면에 뿌리내린 교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반드시 제거되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의 다른 말이 ‘자기 의’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무서

운 죄입니다.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내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오직 은혜의 복음은 인간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차별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22절).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29-3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그 길 안에서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어떤 요소로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요소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속할 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만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 밖에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 네 가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소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로써만 이뤄졌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써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오직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사와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강영재 장로의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새롭게 보는 눈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님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전 연세
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시간의 흐름이 읽히지 않는 부분을 만나게 된다. 지금껏 알아 온 성경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도저히 그 시대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성경에 쓰여 있다.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보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어? 말도 안 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요 8:56).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창세기 12~25장을 살펴보자.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창 15:1), 깊이 잠든 가운데(창 15:12)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거나 천사를 통해 대화한다. 그런데 창세기 1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신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창 17:1).

창세기 18장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와 같이 몸이 있고, 말을 하며, 음식을 드셨다.

“여호와께서 마르래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열린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창 18:1~2).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로 이해하고 있다. 두 천사는 소동을 살펴보기 위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신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나온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 일 것이다.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 압북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서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담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네 이름은 더이상 아담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창 32:27~28).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창 33:20)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분”(딤후 1:6)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 죽지 않았다(창 32:30). 또 출애굽기 24장에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온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

습니다”(출 24:9~11).

어떻게 된 일일까? 이들이 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지 성자 하나님이신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발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성자 예수님이실 가능성이 있다. 기드온도(삿 6:22~23),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도(삿 13:22), 선지자 이사야도(사 6:5) 여호와와 천사를 만난 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환대하고 대화하고, 아담과 씨름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실까? 성부 하나님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중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아닐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서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 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다(마 1:21).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아세르 인트레이터 목사는 그의 저서 〈아브라함의 점심 데이트〉에서 구약 성경 가운데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연구 내용을 적어두었다. 아세르 인트레이터 목사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사람’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이심을 주장한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창세 다음부터 성육신하시기 전까지, 즉 구약 시대의 예수님의 사역은 잘 모르고 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으며 모든 물질세계를 예수님을 위해, 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창 1:26).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요 1:1~3).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요 1:10).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던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요 8:57~58)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요 17:5).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 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요 17:24)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롬 11:36).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엡 1:4).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히 1:2).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구약 시대 믿음의 조상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손님으로 나타나셔서 환대받고 대화하고 언약을 맺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구약 성경에서도 좋으신 예수님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조력존엄사법’에 대하여 1. 크리스천 법학자의 시각에서 2. 크리스천 의사의 시각에서

‘조력존엄사법’은 인간의 존엄과 무관하다!

조력존엄사법 발의가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력존엄사법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개념이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불린다. 조력존엄사를 둘러싸고 생명경시나,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냐의 대립이 첨예하다. 크리스천들은 조력존엄사법 발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까? 2회에 걸쳐 크리스천 법학자와 의사의 시각에서 조력존엄사법을 고찰하는 글을 심는다.

/ 편집자주



이상현 집사
(강남E공동체, 송실대
법학과 교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화제다.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증후군과 관련된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다.

2010년 벨기에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은 38세 여성 ‘티네 니스’에 대한 조력자살을 허용한 바 있다. 그녀는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지도 않았고, 사실 전혀 아프지도 않았는데, 수용하기 어렵고 치료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녀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더 있다. 지난 6월 16일 국내 최초로 의료진 도움을 받은 자살을 합법화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의원은 발의 이유로 “말기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본인의 의사로 삶을 마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국민의 76.3%가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했다고 나타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의 조사 결과)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말기 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다면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했다는 사람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은 30대 여성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국가들의 현실과 이 죽음의 문화의 희생자들에 관한 정보를 받고 그 설문조사에 임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조력존엄사에 대한 각국의 상황

안락사가 합법화된 여러 나라가 최초 법안이 도입될 당시에는 안 의원의 발의안과 유사한 소위 안전장치, 즉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안전장치들은 조력자살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위반되고 결국 폐기된다.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안락사에서 적절한 안전장치란 결코 마련될 수 없다. 그렇기에 안락사를 일단 허용하면 논리적으로 중단점이 없다. “일단 누군가를 죽여도 좋다는 문을 열면 남은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누구를 죽여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한 벨기에는 2005년 정신적인 고통도 ‘수용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운 고통’에 포함했고, ‘정신 및 행동 장애’나 우울증,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지 고작 8년 만인 2010년 장애가 아닌 ‘차이’로 보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받은 사람까지 이 나쁜 생각의 희생자가 되었다.

네덜란드는 조력자살의 대상이 불치병 환자를 넘어 자신의 삶이 더이상 만족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년층으로까지 확대했다. 안락사 합법화에 기여하고, 합법화 이전에도 안락사에 적극 가담했다가 입장을 바꾼 네덜란드 외과의사 버트 카이저는 이미 지난 2020

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한국 사람은 아담 이래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한 국가가 일부 생명이 살 가치가 없고, 의사들이 살인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고려 대상이 되거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압박받는 것을 막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영국의 생명권 옹호단체의 대변인 위녹은 “안락사가 대개 처음에는 마치 ‘죽을 권리’인 것처럼 홍보되지만, 실상은 매우 빠르게 ‘죽을 의무’로 둔갑한다”고 말했다. 항상 누가 살 것인가와 누가 죽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시작할 것이다. 만약 죽음의 표적이 된 사람들이 자진해서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으라는 격려를 받다가 면허를 가진 누군가의 방문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SF 소설의 내용이 아니다. ‘캐나다의 왜 가난한 사람들을 안락사시키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안이주는 “수용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한 의사조력자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중략) 가난

“조력존엄사는 살인이고 국가가 막아야 할 일이다 조력자살법인 조력존엄사법 발의안이 하루속히 폐기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년 “네덜란드는 장애 아동이나 중성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까지 안락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는 2015년 말기질환으로 고통받고 죽음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지 불과 5년 만인 2021년 3월, 말기질환의 요건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현재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려면 단순히 의사 한 명과 증인 한 명이 그 환자의 신체, 정신적 고통이 “환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이하로 나아질 수 없다”는 식의 내용에 동의만 하면 된다. 내년에는 조력자살 대상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이 있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될 것이다. 미성년자들까지 포함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안락사를 합법화한 미국의 주들도 마찬가지로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라

하지 않았더라면 더 살고 싶었을 캐나다인들이 본인들의 상태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시키기에는 너무나 가난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썼다. 실제로 밴쿠버의 한 여성은 빗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약을 살 수 없게 되자 의사조력자살을 선택했다.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질환 관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조력자살에는 한 건당 단지 2,327달러(약 250만 원)만 든다. 적어도 캐나다에서 가장 가난한 시민 중 일부에게는 죽으라고 강요하는 압박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실이다. 캐나다 사례에서 보는 바 재정 압박 상황에서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취약 계층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소위 그들의 자율성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자살률을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안락사가 허용되는 미국 워싱턴주나 오리건주의 자살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네덜

란드 정신건강저널 2017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락사(조력자살)는 일반(비조력) 자살 증가에 기여한다”고 나와 있다.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다. 실정법을 통해 죽음이 고통의 치료제라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국가에서 조력자살 합법화가 비조력 자살의 증가를 왜 초래하지 않겠는가? 법과 사회가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살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제시할 때, 그들은 그 말을 더 수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조력자살이 합법화되지 않았는데도 현재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이미 1위이며, OECD 평균보다 두 배가량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의사조력자살의 실체는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존엄성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을 버리면 인간의 존엄성을 성직자끼리 결정권이 나 낙태할 권리를 넘어 자살할 권리에서까지 찾는다.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수태부터 자연사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발견된다. 아무리 ‘조력존엄사’라는 단어로 포장해도 이것은 단순히 살인이고, 국가가 막아야 할 일이지 장려할 일이 아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하게 허용 가능하며, 애정 어린 반응은 최대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보살피고,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닐까? 신학자 길버트 마일랜더는 “의학적 연구와 의료 행위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몸과 시대, 장소, 한계 속에서 사람들이 반영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하고, 기독교적 동정심을 좌우하는 원칙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콜슨기독교세계관센터 회장 존 스톤스트릿은 “이미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의 사례에서처럼 동정심 결여를 조력존엄사 같은 완곡어법으로 위장해 수용할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가격표가 붙고, 본질적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에 가격표가 붙을 때마다 그 가격이 싸진다”고 했다. 우리가 조력자살법인 조력존엄사법 발의안이 하루속히 폐기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호수아청년부
튀르키예 아웃리치

선물 같은 일주일!

지난 7월 9일(토)부터 16일(토)까지 튀르키예(前 터키)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여러 모로 의미가 있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발발로 인해 해외 아웃리치가 3년 만에 재개되었다. 또 이번 아웃리치가 내 인생 첫 번째 아웃리치였다.

그래서일까. 아웃리치를 신청하고 준비하는 기간 내내 기쁨과 즐거움보다 불안함과 막연함, 두려움이 더 컸다. ‘아웃리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과연 팀에 도움이 될까?’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부탁을 했다. 나 역시 매일매일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주셨다. 나의 나약함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아웃리치 기간 내내 부어주셨다.

튀르키예 아웃리치 일정은 크게 세 가지였다. 현지 주일예배 섬김과 현지인 접촉사역 그리고 성지 탐방이었다.

튀르키예에 도착한 첫 날이 주일이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현지 교인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언어와 인종이 달랐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 시간이 정말 따뜻했다.

그 이후 나흘 동안은 튀르키예 각 지역에서



여호수아청년부 튀르키예 아웃리치팀이 현지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현지인 접촉사역).

현지인 접촉사역을 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도 활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는 것은 가능했다. 우리 팀은 두세 명씩 짝을 이뤄 다니면서 현지인들을 만나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무작정 친구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구심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을 무색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슬람교의 여성 차별에 대해 큰 불만이 있는 현지인을 만나 함께 손을 잡고 튀르키예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 히잡을 쓴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 종일 앙카라(튀르키예 수도) 곳곳을 구경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튀르키예 전통춤을 따라 추기도 했다. 지난달 남편을 잃은 어머니와 두 아들을 만나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기도 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는 나의 말에 얼른 자녀들을 불러 “내 아들이야.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라고 말하던 그녀의 눈

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집트에서 온 유학생을 우연히 만나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기도 했다. 매일매일 선물처럼 주어진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튀르키예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였고, 그들의 삶을 나누며, 그 영혼들을 품게 하셨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감바도기아와 이스탄불의 성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지하도시 데린쿠유의 십자가 모양의 예배당이었다. 종교 박해를 피해 지하 깊은 곳에 예배당을 만들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을 생각했더니 절로 마음이 숙연해졌다.

튀르키예에서의 일주일엔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이름만 알았던 낯선 땅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곳의 여러 모습을 알게 하셨으며, 수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다.

혹시라도 여러 상황의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나약함, 혹은 다른 이유로 나처럼 아웃리치를 망설이는 지체들이 있다면 꼭 한 번 용기 내어 결단하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것이라고 확신한다.



변하연 자매
(여호수아청년부)

허브대학부
몽골 아웃리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지난 7월 4일(월)부터 11일(월)까지 몽골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내가 몽골 아웃리치를 신청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아웃리치가 재개되면 반드시 신청하고야 말겠다는 갈망이 있었다. 매년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아웃리치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몸소 깨달았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이 드넓게 펼쳐진 몽골로 떠난다면 매마른 마음에 단비같이 임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 19:1).

몽골 땅을 밟고 처음 내뱉었던 말이 “하늘이 이렇게 넓어?”였다. 하늘과 대지가 이렇게나 넓었나 싶을 정도였다. 절로 감탄이 쏟아졌다. 광활한 자연 앞에서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애쓰지 않아도 감탄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 바로 몽골이었다.

우리 팀은 이번 아웃리치에서 현지 청년사역자들과 함께 청소년 캠프를 준비했다. 청소년 캠프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비록 언어도, 문화도, 사는 곳도 다르지만 그것은 전혀 장애가 되지 못했다. 몽골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현장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눈물로 기도하는 몽골 청년사



허브대학부 몽골 아웃리치팀이 현지 청년사역자들과 함께 청소년 캠프를 하고 있다.

역자들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감동이 몰려왔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을 선교사님의 지난 시간이 느껴져서 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선교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 팀을 몽골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한 가지 깨달은 것도 있다. 은연중에 ‘아웃리치는 잔뜩 주고 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몽골 청년사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몽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현지 청소년 캠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아웃리치는 잔뜩 주고 오는 것이라는 생각은 나의 교만이었음을 깨달았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에는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움켜쥐고 깊은 물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내가 해내는 일들로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무것도 놓지 못하니까 숨 막히는 같증만 더해졌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선아,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아볼래? 그리고 몸에서 힘을 빼 봐.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와 나를 마주할 수 있을 거야.”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아웃리치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꽤 순탄하게 돌아갔다. 팀원들이 미아가 될 뻔하기도 했고, 스마트폰을 택시에 두고 내리기도 했고, 타고 가던 버스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했다. 비행기 탑승하지 못할 뻔하기도 했다. 이 모든 헤프닝이 순탄하게 해결되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음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는 것임을 온전히 배울 수 있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감탄하며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또 선교를 받는 몽골이 아니라 선교를 보내는 몽골이 되기를 기도한다. 선교사님과 몽골 청년사역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제자 양육을 이어갈 수 있기를 오늘도 마음 다해 기도한다.



이지선 자매
(허브대학부)



지난 7월 16일 선한울타리센터(강서구 화곡동)에서 오픈감사예배를 드렸다.

선한울타리사역팀, 선한울타리센터 개소

자립준비 청년 및 위기청년을 위한 숙소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팀에서 선한울타리센터(강서구 화곡동)를 개소했다. 선한울타리센터는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 청년)과 위기청년들의 쉼터 및 보금자리다. 지난 7월 16일(토) 선한울타리센터 오픈감사예배를 드렸다. 선한울타리사역팀, 제이흙, 고아사역에 관심 있는 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선한울타리센터 오픈감사예배는 임정열 장로 대표기도,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의 말씀, 사역 및

팀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기훈 목사는 “인생의 쉼터”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보금자리가 없어서 방향하는 청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쁘다”면서 “청년들이 선한울타리센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쉼과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임귀복 목사(주영광교회)는 “선한울타리센터에서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선한울타리센터를 3년 무상임대한 김을형 집사는 “선한울타리사역이 더 커지고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성도가 함께 섬기고,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오창화 집사(선한울타리사역팀장)는 “오랜 시간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외롭고 상처받은 청년들이 아파로 강도 만난 자들이나 다름없다”면서 “더 많은 성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청년들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기독교 OTT 풍당 ‘내 마음 일기예보’

청소년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프로그램

기독교 OTT ‘풍당’에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는 프로그램 ‘내 마음 일기예보’를 론칭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2화까지 ‘돈’, ‘질투’ 등의 주제를 다뤘다.

‘내 마음 일기예보’는 매주 목요일 기독교 OTT 풍당에 업로드된다. 9월 1일까지 8개의 영상이 소개될 예정이다. 자녀들을 건강하고 어른으로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와 교사, 건강한 정체성을 수립하기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콘텐츠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10월 12~18일, 이스라엘 기독교 인문학 여행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이스라엘 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2일(화)부터 18일(일)까지 6박 7일로 이스라엘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010-4902-1022)로 하면 된다.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에서는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구약성경, 사복음서, 중동전쟁사, 초기의 로마 황제, 헤롯왕조의 흥망, 유대인의 자녀교육 등을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한다. 문의: 010-4902-1022

두란노바이블아카데미 온라인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 ‘10기 기독교 성가치관 학교(기본과정)’ 세미나가 8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온라인(동영상 강의)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김지연 약사(사단법인 한국가축보건협회 대표이사)

가 한다. 디지털세대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교육하기 원하는 학부모, 교사,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 8월 1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5

나는 다르게 산다!

차세대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 시작

2022 차세대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 ‘나는 다르게 산다’가 시작됐다. 올해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는 마태복음 5장 13~14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된다.

차세대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는 지난 7월 22일(금)부터 23일(토)까지 서빙고 파워웨이브 1부 청양송 의청소년수련원, 3부 서울장신대학교, 도곡 파워웨이브 강화신화유스호스텔에서 시작했다. 서빙고 파워웨이브 2부는 7월 29일(금)부터 30

일(토)까지 IYC국제청소년유스호스텔, 4부는 8월 5일(금)부터 6일(금) 흥원연수원에서 캠프를 한다. 양재 파워웨이브 고등부는 7월 29(금)부터 30일(토)까지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에서, 중등부는 7월 31일(일)부터 8월 1일(월)까지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에서 캠프를 한다. 다른 캠퍼스에서도 8월 초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여름 캠프가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남대문희망공동체 찬양인도자 모집

ISB서울빌딩 2층, 주일 오전 11시 30분

남대문희망공동체에서 찬양인도자를 모집한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남대문 5가(서울역) 노숙자 및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남대문희망공동체 찬양인도자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50분까지 남대문희망공동체 주일예배

를 섬긴다. 장소는 ISB서울빌딩 2층(용산구 한강대로 363-2)이다.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된다.

독고영 집사(남대문희망공동체 팀장)는 “쪽방촌 지체들과 함께 큰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동이 흐르는 예배의 현장에 함께할 주인공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르완다 ECD유치원 졸업식

가혼도마을, 응호망과마을 어린이 67명 졸업

NGO 더멋진세상이 지원 및 운영하는 르완다 가혼도와 응호망과 ECD유치원 졸업식이 지난 7월 13일(수)과 15일(금) 있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가혼도마을과 응호망과마을 어린이 67명이 졸업했다. 졸업식에는 학부모, 마을 리더십, 지역 공무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ECD유치원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다. 3년 과정이다. 기초 학력, 예체능, 위생, 보건 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말라!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 참가자 모집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에서 ‘경배와찬양학교 및 새 예루살렘을 향한 7000학교’, ‘어린이 7000학교’, ‘십대 7000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홈페이지(www.anm21.org)에서 하면 된다. 훈련비는 자율 현금이다.

‘경배와찬양학교 및 새 예루살렘을 향한 7000학교’는 7월 25일(월)부터 31일(주일)까지, ‘어린이 7000학교’는 8월 4일(목)부터 7일(주일)까지, ‘십대 7000학교’는 8월 11일(목)부터 14일(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 02-796-9700

함께 나누는 여름사역 이야기

2022 여름 사역 간증 및 사진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여름사역 이야기’를 모집한다. 성인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사역팀의 2022 여름 아웃리치, 여름 캠프 등에서 받은 은혜를 담은 원고와 생생한 사진을 기다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hha0@onnuri.org)로 간증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보내면 된다. 간증 원고 분량은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 내외다. 사진은 단체 사진보다는 역동적인 사역 장면을 담은 사진이 더 좋다.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은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하고,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준다. 문의: 02-6959-0001

